

1992

4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출애굽기 1장 1절~12장 51절



“주여! 북한에도 예수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소서”
(통일촌교회 93. 3. 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출애굽기 서론

출애굽기는 지금으로부터 3400여년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종살이부터 소개되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짐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서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되돌아 갔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주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생활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얼마되지 않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들에게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40년의 나그네 길에서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옛생활을 잊지 못하여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했다. 이러한 무질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10가지 계명을 주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꼭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광야생활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변화된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 보여주고 있다.

4월의 기도제목

1.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강건함과 사역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충만
4. 전교회의 뜨거운 기도운동
5. 전교구의 부흥과 배가성장
6. 교회학교의 질적 양적 성장

1992

4

The Family Alter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출애굽기 1장 1절~12장 51절



"주여! 북한에도 예수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소서"
(통일총교회 93. 3. 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 (수)번성의 축복

찬송 363, 성경 출 1:1-2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1:12)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모세가 출생하기까지는 200여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가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였고, 12절에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였으며, 20절에는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며 심히 강대하며”라고 하여 세번이나 이스라엘의 번성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번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계속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육신적인 자손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유의하여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또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의 축복이 핍박중에 환난중에 찾아왔음을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 *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학대하던 애굽 왕은 라암세스 2세입니다. 요셉을 대우하던 왕들은 같은 동족인 셈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암세스 2세는 함족계통의 왕이었으므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대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2:10)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당시 겪어야 할 중노동에서 즉 환난에서도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처럼 보호하시고, 40년동안 궁중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훈련중에 애굽인을 처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로 하여금 절망의 깊은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광야로 도망쳐서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40여년 동안 은둔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이처럼 광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절망이 한 인생을 얼마나 깊고 깊은 수렁속에 던져 넣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져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광야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극적으로 건져냄을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처럼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 * 시편 121편 4~6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우편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3 (금)하나님의 권고

찬송 432, 성경 출 2:16-25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2:23)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의 날이 계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아살해가 계속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빈틈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모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그에게 채워져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으로 채웠습니다. 인내가 부족하였던 모세, 혈기가 끓어 올랐던 그의 성품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 *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신앙과 예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 순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야곱은 회개의 신앙, 기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 모두의 신앙의 공통점은 순종의 신앙을 소유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생활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3:5)

이스라엘 율법 중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표시로 발에서 신을 벗어 증거를 삼는 규칙이 있습니다(신 25:7-10, 룻 4:7). 권리란 법률상 보장된 이익추구 또는 정당한 요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의에 의해서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입니다. 소련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 나크는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로써 1958년도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되었으나, 소련의 공산당 강압에 못이겨 이 영예로운 수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영국의 왕족 에드워드 8세는 미국인 이혼녀 심프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세째, 감사와 감화에 대한 자발적인 권리의 이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중요함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같았지만 그 이유와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금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 * * 히브리인의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습니다. 상전에 대한 자기 신분의 표시요, 존경과 전적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의 백성들입니까?

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교만의 신을 벗고 겸손한 생활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감절로 주옵소서.

5 (주일)여호와 하나님

찬송 356, 성경 출 3:13-22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3:14)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물으면 누구라고 해야 하는 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15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요, 무엇이든 당신의 뜻에 따라서 되게 하시는 분이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주셨고, 모세에게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져나오는 권능도 주셨고, 요셉과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는 총명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두려움에 있는 자에게 안정과 평안을, 실의에 빠진 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을 내놓는 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문제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 * *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듣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십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곧 신앙이요 순종이며 기도이며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 오늘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생활되게 하소서. 당회원들의 가정과 사업위에 축복하소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4:3)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때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인 '네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천해진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모세 자신에게만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을 구하시는 일에 단독으로 사역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동적이었던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을 나타내는 데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모세와 같이 피동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니면 지팡이와 같이 무익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미천하더라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되었습니까?

- * * 이적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단순한 순종입니다. 손에 있는 것을 땅에 던져라. 꼬리를 잡아라 그리고 손을 품에 넣어라.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적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생활하게 하소서. 총현의 모든 성도들의 사업에 축복하소서.

7 (화)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찬송 101, 성경 출 4:10-17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4:11, 12)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에 능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다섯번째 사양입니다(3:11, 13, 4:1, 10, 13). 이러한 모세의 사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였으니 네가 입이 뻗뻗하고 말에 능치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책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를 지도자로,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이유를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 * *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해결됨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도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4:20)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명령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나귀의 고삐를 한손에 쥐고 한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가는 모세는 힘없는 나그네 노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볼품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쥐고 가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안전이 보장된 길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로서 애굽을 나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때 예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 *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모세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장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지만 인간관계의 윤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부모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4: 31)

오늘 본문은 아론과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광야에서 맞이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만남속에 대화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고 이적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적을 베풀었더니 모두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짙막한 내용이지만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가슴 뭉클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고통을 감찰하시고 돌아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 * *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중심적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대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5:1)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정치적인 탈출이 아니라 종교적인 탈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부수적인 것이요,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2절에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 * *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마 6:33).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6:1)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로에게 요청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심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노역에 부딪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말합니다. 조금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 하심을 함께 보며 경배를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생활속에 역경이 닥쳐오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이 간구속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모세가 시련을 당할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줄 믿고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할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둘째,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는 이 말씀을 잊고서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기를 늦추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 * *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유를 얻기까지 무수한 난관을 극복치 않으면 안됩니다.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6:6, 7)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괴로운 노역에서의 해방이요 둘째는, 그들의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다른 생명을 대신 희생시키고 구원하여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사 43:3-4). 세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구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으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가나안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변함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믿음 밖에 없습니다.

- * *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10개의 계명과 또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그안에서 살아갑니다. 언약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6:29)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함께 저주 아래 있었던 레위 족속(창 49:5-7)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계보를 보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람이 그 아비의 누이인 요게벳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명을 자각시키시기 위하여 26절과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군대대로 애굽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와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이 주어짐으로 모든 조상들이 가치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론마저도 모세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런면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자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 *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못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공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그분의 구속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7:6)

모세를 통한 이적의 시작입니다. 모세의 손에 잡혀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만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인들이 신으로 숭상하던 뱀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동시에 심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술객들과 모세의 싸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보고도 바로는 더욱 마음이 강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바로는 어리석게도 왕이란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스럽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장 싫어 합니다. 자신의 가진 위치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을 떠는 자를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바로는 교만의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대로 이루어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에게는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 * *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5 (수)나일강이 피로

찬송 344, 성경 출 7:14-25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7:17)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신이 자기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일강이 1년에 한번씩 범람하면 자동적으로 수리와 비료가 공급이 되어서 농사가 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사람들은 나일강 신을 섬기고 농사를 지으며 여러 신을 섬기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멸하시기 위하여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술객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도 맑은 물을 가지고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박해 졌습니다. 참된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처럼 사탄의 거짓된 이적에 속아서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종교에서 표면상 유사한 이적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20세기 바로와 술객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과 비슷한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 * * 모세는 신명기 13장 1-3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요일 4:1)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8:5)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하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개구리를 수없이 보내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의 풍요와 복의 상징이었던 개구리가 그들에게 해를 가져다 주고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더 이상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바로왕도 모세에게 하나님께 구하여 개구리들을 물리쳐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바로에게 알려주겠다는 듯이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음을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 * *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위한 두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풍요의 신을 재앙의 신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축복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그것을 끊어버리게 만드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임을 개구리 재앙을 통해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 (금)이 재앙

찬송 80, 성경 출 8:16-19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8:17)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세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었고 사전에 경고 없이 내려졌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किन'입니다. 이 말은 '빈대'나 모기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각다귀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는 않으나 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곤충들은 피부에 고통스런 자극을 일으키고 그 괴로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우상들을 한순간에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 *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고없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피조물 심지어 땅의 티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채찍으로 삼으셔서 인간들을 징계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8:31)

네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로브'입니다. 이것은 '아라브'에서 파생된 말로 '혼합물', '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다른 번역은 개파리(dog-fly)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집 파리가 아니라 특별히 열대지방에서 홍수 후에 떼를 지어 물려다니는 특종의 파리로서 짐승들과 사람을 쏘고 병을 옮기는 등 무서운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거스리는 자에게 또다른 징계의 도구로 그들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번째의 재앙은 이스라엘백성들이 사는 고센땅에는 재앙에서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 출애굽을 허락하게 만드시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를 불러 잘못했으니 파리떼를 물리쳐 줄 것을 요구했고 아울러 출애굽을 약속했습니다. 막상 파리떼가 물러가자 마음이 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로 강경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 * *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을 때 징계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게 합니다. 그런고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구별된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9 (주일)악질 재앙

찬송 527, 성경 출 9:1-7

「말과 나귀와 악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9:3)

다섯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생축들이 심한 악질로 말미암아 심각한 타격을 입는 내용입니다. 이 악질은 일종의 무서운 전염병으로 보여집니다. 이전까지의 재앙은 단순히 사람 또는 짐승을 일시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번 재앙부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서 훨씬 재앙의 강도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악질 재앙은 나일강물이 피로 변한 첫번째 재앙과 더불어 애굽의 각종 우상 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축들은 각종 형태로 형상화되어 애굽인들의 경배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우상 종교의 희생 제물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살고 죽는 생명의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심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번째 재앙 때와도 같이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강박하기만 했습니다.

- * * 계속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술객들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9:11)

본문에는 여섯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종은 ‘불에 탄다’, ‘뜨거워 진다’, ‘끓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말의 뜻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독종은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 증세와 함께 물집이 생기고 급기야는 화농해서 고름이 흐르게 되는 무서운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욕의 피부병을 연상시키는데 당시 애굽인들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위에 무서운 재앙을 퍼부으시면서도 그를 직접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직접 경험케 하여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호와 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열방들에게 강대국인 애굽에게 입한 일련의 재앙을 통해 여호와 의 이름과 능력을 계시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애굽의 왕도 어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 * * 무서운 재앙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바로는 그 마음이 강박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행하는 모습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여 봅시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9:18)

하나님은 바로의 반대를 꺾기 위해 일곱번째 재앙을 보내기로 작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개국 이래로 들어보지 못했던 극심한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이 우박 재앙은 뇌성과 불덩이를 동반한 것으로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큰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19절), 모세는 바로에게 들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우박이 내릴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축과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자비로운 충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강박한 바로 조차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기회를 헛되이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21, 25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기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은혜의 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 * 은혜받을 때와 구원의 날은 바로 지금 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신하가 일반이라」(4 : 6)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우박 재앙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도 이 재앙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고센땅이 이 재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박 재앙은 다른 재앙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27절).

그러나 바로의 회개는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중보기도 후에 나타난 바로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34절). 바로는 다시 형편이 나아지자 마음이 강박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 *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잠시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입술만의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외식적인 회개와 진실한 회개를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심한 바를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순종이 아닌 삶의 순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처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다시 마음이 강박해지는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23 (목)메뚜기 재앙

찬송 359, 성경, 출 10:1-1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10:4)

하나님은 바로를 꺾기 위해서 다시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메뚜기는 식물을 먹으며 집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피해는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우박 재앙이 있을 후 남아 있던 모든 초목을 삼켜 버리는 메뚜기 재앙, 그것은 지금까지 어느 재앙 보다 혹독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3절)하고 담대히 책망했습니다. 재앙에 재앙이 거듭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겸비치 못한 바로를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살면서 때로 우리도 거듭 불순종 하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있다면 지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 스스로가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낮추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추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앙에 재앙이 연속될 것입니다.

* * 그러나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께 핑계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선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우리 마음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 완악한 마음 대신에 겸손히 낮출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10:19)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뚜기 재앙이 임하였다. 메뚜기 때는 동풍을 타고 날아왔고 그 수효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시 105:34, 35). 어떤 무서운 기병이나 보병보다 이 메뚜기 때를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메뚜기 때는 황폐를 가져왔다.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었으며 땅 위의 소산을 다 먹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놀라서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속죄하였으니”(10:16). 물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바로의 회개는 진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강퍅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뚜기 재앙을 그치게 했습니다. 동풍이 메뚜기 때를 몰고 왔으나, 이제는 서풍이 그것들을 다시 몰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거두는데도 신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며, 자비를 나타내시기에 신속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어떤 재앙이라도 신속히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돌이키면 기쁘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시는 분이십니다.

- •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동풍으로 메뚜기 때를 몰고 온 하나님은, 또한 서풍으로 신속히 그것들을 다시 몰아 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신속히 재앙을 거둘뿐만 아니라 기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25 (토) 흑암의 재앙

찬송 455. 성경 출 10:21-29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10:22)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Ra)'를 최고의 신(神)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재앙은 그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흑암은 철저한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흑암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흑암의 사슬에 갇혔으며, 가장 밝았던 궁전도 완전한 토굴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23절). 그들은 모두 집에 갇혀 있었으며, 무서운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하는 광명이 있었더라"(23절). 하나님은 빛을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고루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빛 가운데서 걸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애굽의 가장 화려한 궁전보다 초라한 이스라엘의 오두막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 * 저주받은 악인의 집과 축복받은 의인의 집은 구별됩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흑암과 빛은 확연히 다릅니다. 과연 우리는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거니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생활이 빛 가운데 있는 생활입니다. 비록 세상은 흑암이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되었다」(11:3)

성경의 영어 명칭중에 「Testament」가 있습니다. 이는 언약 혹은 약속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로써 오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주제로 되어있고, 신약을 「New Testament」로써 메시아 예언의 성취와 함께 새로운 약속인 오순절 성령 부어 주심과 주의 재림 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여 줍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예언하셨고, 동시에 출애굽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고역으로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규와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권념하셨습니다.

- * *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곧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꼭 지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꼭 지키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새겨보도록 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약속하시고, 일이 성취된 뒤에 당신의 약속의 신실성을 더욱 믿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27 (월) 유월절에 관한 규례

찬송 412, 성경 출 12:1-14

「내가 애굽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12:12-13)

유월절 규례의 내용으로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희생제물로 사용된 것은 일년 된 흠없는 수양이나 염소입니다. 제물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 피를 그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희생제물 미리 준비함-피를 바름-고기 구워 먹음-급히 먹음의 구조를 이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유월절 어린양이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영접하는 구원과정과 잘 연결됩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신 구세주-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예수의 살과 피를 믿음-죄와 파멸에서 급히 탈출함의 구조로 연결되어 설명됩니다.

- * * 유월절 규례의 말씀을 볼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다”(요 6:54-55)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칠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12:15)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동안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의미와 믿고 따르는 성도의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무교절을 지키라”(17절)라고 합니다. 지키되 영원한 규례를 삼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 *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교만, 아집, 정욕 등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난도 각오하고 신앙의 십자가 혹은 직분이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29 (수) 유월절의 명암

찬송 487. 성경 출 12:21-30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유월절 제사나 여호와께서 애굽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12:27)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의 가정과 애굽인의 가정에는 너무나도 판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가정에는 구원과 보호가 있었으나 애굽인들의 가정에는 장자들의 죽음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암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의 장면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고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희생의 어린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보호하심이 있으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파멸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믿음과 구원의 반석이시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고 부딪치는 돌이 됩니다(롬 9:32-33, 벰전 2:7-8).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의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되시기도 하십니다(눅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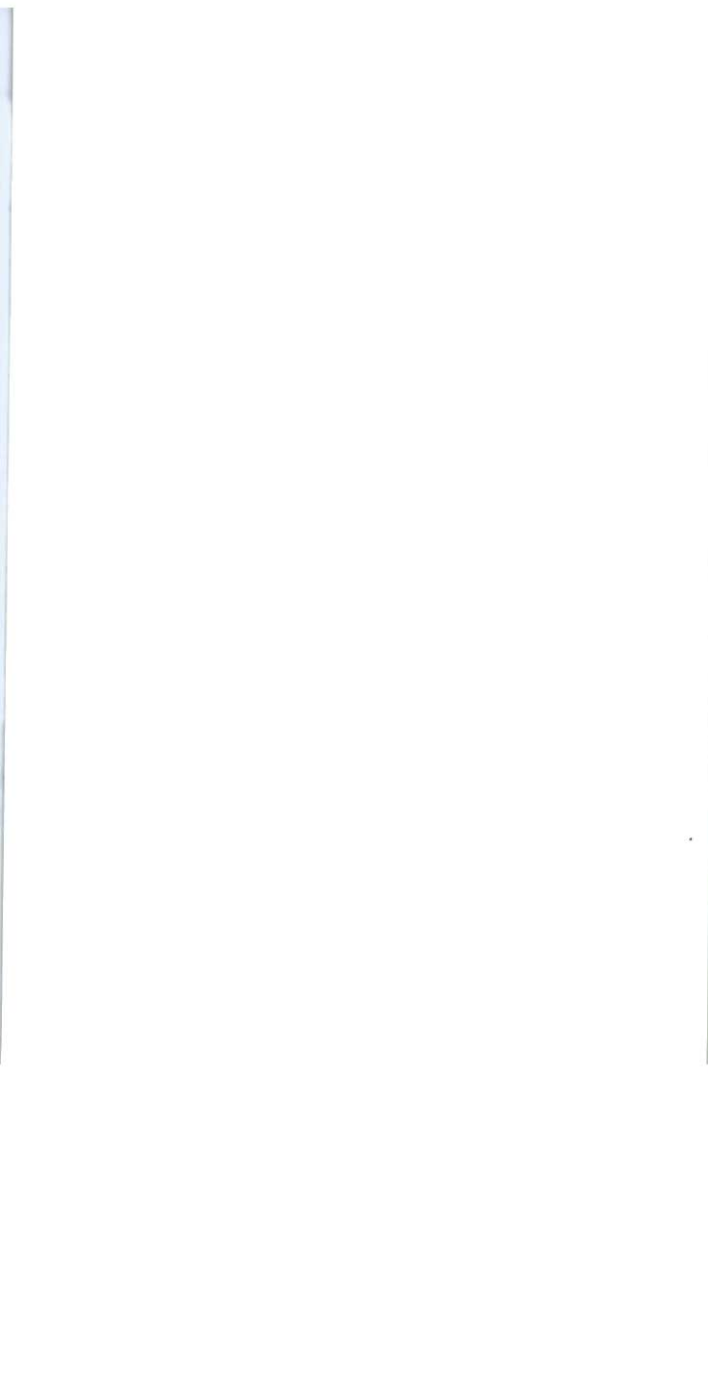
- * * 오늘날도 우리 명암의 세계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기쁨의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온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없이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은 없습니까?

「사백 삼십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키 것이니라」(12:41-42)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백년 수천년이 흘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12:35-36).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12:38)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물질의 축복은 고난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요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 압제자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셨습니다.

* * 우리가 여기서 깨달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과 고난 후에 축복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약속의 성취와 따라오는 물질적 축복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 다같이
- 2) 성경봉독 ...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